

‘기간 제한 없는 항구적 지원’ 전제 재정특례 반드시 특별법에 담겨야

광주전남특별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비상

<4> ‘재정 자주권’ 없는 통합은 한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명문화
중소벤처기업청·환경청·노동청 등
인력·예산 통합 지방정부로 이관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역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링거 주사’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항구적인 재정 특례가 반드시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들과 학동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퍼키지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합 단체장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격상하고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기획 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높여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7년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 흥지구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책도 내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 불이익’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에 매년 5조원 안팎의 실탄이 공급되면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나 지역 특화 사업 육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 모니터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당신의 삶이 더 특별해집니다’란 홍보문구가 송출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그러나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4년 한시 지원’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년 뒤 지원이 끊긴다면, 통합 초기에만 반짝 효과를 누리다 결국 다시 열악한 지방 재정의 현실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통합 시 중복된 시스템을 정비하며,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물리적 통합의 기반을 닦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년이라는 기간은 통합의 인착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이후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지원이 중단될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기간 제한 없는 항구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행정통합 교부세’도 4년짜리 특별 보너스가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손실분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추가 지원이 계속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통합 특

별법’에 통합 후 보통교부세 총액이 통합 전 양 시·도 합산액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의 영구 적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주·전남 통합정부’ 설치 및 항구적 운용,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 이양 역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개발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와 규제 정비 등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과감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의 출장소 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청, 환경청, 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인력, 예산을 온전히 통합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지원부터 환경, 노동 규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만 실질적인 ‘기획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분명 행정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진전된 안이지만 4년 뒤 재정 절벽을 마주하게 될 ‘시한부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사회에의 존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2054억 확보…역대 최대

전남도가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 광택 해소에 나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전년보다 237억원(13%) 늘어난 2054억원 규모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계, 신체·기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핵심 돌봄 사업이다. 전남은 6200여명의 활동지원사

가 6500여명의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돋구고 있다.

올해 활동지원사에게 제공되는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전년보다 3.9% 인상(1만 6620원→1만 7270원)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또 전남도는 국비 지원 외에 돌봄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58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최종증 발달장애인과 허귀질환자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전남도는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더욱 폭넓은 돌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등록장애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재야 출신 민주진영 ‘전략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멘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국회의원 7선, 국무총리 지내
5·18 진상조사·노동분야 주력

이해찬 민주평통 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를 만인 이날 오후 2시48분께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고인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김대중·노무현·민주진영 전 정부에서 정부와 당 주요 역할을 맡았으며 민주 진영을 지켰던 반세기의 여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에 투신한 뒤 1974년 유신체제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고인은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 목숨 다 바쳐 이 땅이 민주화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이른바 민주진영 20년 집권론을 언급했던 고인은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쌍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인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상임공동대책위원회를 맡으며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입안을 뒷받침했다.

시신은 26일 밤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인천 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회장회에서 계엄군의 광주시민에 대한 살상 행위를 날낱이 밝혀내면서 ‘면도날’이라는 별명이 불기도 했다.

노동 분야 입법 활동에도 주력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이상수 전 의원과 함께 ‘노동위 3총사’로도 불렸다.

1995년 민선 1

기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을 맡았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고인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겹친 21대 총선 때 시스템 공천 등을 통해 총선을 암울로 이끌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위상 비례정당을 포함해 300석 중 180석을 확보, 1987년 이후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부로 거듭났다.

2018년 전당대회 선거운동 때 “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며 이른바 민주진영 20년 집권론을 언급했던 고인은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쌍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인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상임공동대책위원회를 맡으며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입안을 뒷받침했다.

시신은 26일 밤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인천 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국내 최초 렌탈공급 등록 업체



주요 공급 대상

- 초·중·고·대학생, 각계 정부기관, 군부대, 종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기업, 삼성, LG, SK 등 기자
- 교실, 강의실,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

사업의 강점

- 국내 최초 렌탈 및 정부조달 방식으로 무한 수익창출
- 교육기관 및 행정 공공기관, 군부대, 종교단체, 대기업
- 시장 안전성, 지속적 성장 특별 초기 참여분께 우선권 제공

창업 기회대상

- 다면간 행정 공공기관 및 교육관련 유사 직종 퇴직자
- 교육 행정기관, 군부대 근무 종교단체 지역 기관 경력자
- 조직관리 지역총판, 새로운 창업 희망자 우대

MK 엔케이솔루션(주)
연락처 : 010-2366-8843

태양광 발전사업하기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허귀질환자 대상으로 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 발전소의 명칭
• 하동마을 태양광발전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 발전소의 위치
• 전남도 여수군 돌산읍 우두리 73-10 (인근공유민)
- 발전소의 면적
• 1호(2,197.9m²), 2호(22,297.7m²), 3호(21,243.6m²), 4호(22,136m²), 5호(21,582m²), 6호(29,160.0m²), 7호(29,544.4m²), 8호(29,223m²), 9호(21,298m²), 10호(20,196m²), 11호(21,689m²), 12호(21,199m²)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하동마을 태양광발전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주식회사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하동마을 태양광발전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주식회사
-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월 26일 ~ 2026년 2월 1일까지 (7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전화 : 051-8023-9996
• 팩스 : 051-8023-9997
• 휴대폰 : 010-4456-4421
• E-mail : thyoo@solarwiz.co.kr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계약문의

062.227.9600

74년을 밟은 노한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갑” 조이소방 주식회사
대구광